이달의 한 마디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이제는 보건관리도 스마트하게!

고양도시관리공사 | 신재훈 보건관리자

글 이승열 **사진** 김재이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다. 휴대전화와 집안의 사물 그리고 자동차까지,
우리 손에 닿는 물건들은 모두 스마트해졌다. 산업보건계에도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신재훈 보건관리자는 기술의 발전을 빌려 사업장의 단점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강한 유대를 쌓으면서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지켜나간다.**

소통에서 시작한 보건관리자의 꿈

"학창시절부터 회장 같은 걸 하면서 친구들 의견 수렴하고 학급을 바꿔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보건관리자의 꿈을 키워온 과거를 떠올리며 신재훈 보건관리자가 말했다. 또래 중에서 흔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성격과 함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매력적인 일이 그를 보건관리자로 이끌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의 성적과 보건관리자 직종의 유망함도 같이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소통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기를 좋아했던 그의 성격과 딱 맞는 직업이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4년째 근무 중인 신재훈 보건관리자는 지금도 소싯적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노동자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는 것.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체육문화시설부터 시작해 환경시설, 교통시설, 바이오매스시설, 소각장 등 고양특례시의 여러 시설들을 관장하고, 그 사업장이 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어 직접 눈을 마주치며 고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신재훈 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 노동자와의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안전보건 활동은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참여도를 끌어 올리려면 노동자와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먼저 다가가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요청사항은 최대한 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죠. 계속 얼굴을 비추다 보니 '사업장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보다
스스로 돌볼 때 확실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실천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팀과
저의 숙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건강,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에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실시한 직장병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입사 후 건강 이상을 경험했는데, 그중 화병,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건강은 직장인 최대의 적이자, 현대사회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몇 년 전, 고양도시관리공사 내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이후 신재훈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우선, 고양시 건강증진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토닥토닥 버스'라는 정신건강 상담

센터를 운영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스트레스와 우울증 정도를 측정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평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들어주며 노동자들의 정서적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바쁜 일정으로 토닥토닥 버스를 방문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콜센터 상담 직원, 야간 노동자 등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직군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도 시행했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노동자의 호응도 점차 상승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고, 직접 듣지 않으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정신건강,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재훈 보건관리자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 스마트하게 보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넓은 사업장, 특히 여러 곳에 분포한 사업장을 소수의 보건관리자가 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이 따르고, 두 발로 열심히 뛰어도 부족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신재훈 보건관리자와 동료들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방 공기업 최초이자 고양도시관리공사만의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탄생시킨 배경이다.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절차가 복잡한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시키며 기존 활동과 대비했을 때 높은 접근성을 구축했다.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 원거리에서도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가능해졌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일일이 작성해야 했던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가능케 했다. 덕분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신재훈 보건관리자, 올해도 이 시스템을 토대 삼아 노동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내고 싶다고 강조한다.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도입 이후 안전보건 활동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보다 스스로 돌볼 때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실천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팀과 저의 숙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